

주제공원개발을 위한 외래 관광객 성향분석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황영우* · 양위주**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라대학교 관광경영학부 부교수

International Tourist Attitudes Analysis for the Theme Park Development in Busan

Hwang, Young-Woo* · Yang, Wi-Joo**

*Senior Research Fellow Busan Development Institute, Busan 601-720, kore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Silla University, Busan 617-736, Korea

요약 : 세계의 각국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기존 관광 선진국들의 이러한 동향은 관광분야에서 특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도시 또는 국가에서는 생존 차원에서의 전략을 창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력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관광목적지로서 경쟁력 높은 해양 주제공원의 설립 움직임과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측면, 그리고 사업의 직·간접적 영향 대상인 외래 관광객의 입장에서 각각의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운영 프로그램 상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핵심용어: 주제공원, 성향분석, 관광객, 선호시설, 마켓조사

ABSTRACT : A theme park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referred facility for attract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ists. Many local autonomies try to establish theme parks within their own territory. Busan Metropolitan City also places emphasis on hosting an outstanding theme park, and to be identified as the tourism destination toward the world city in 21st centu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ourism policy and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analysis to international tourists. First, it is needed to supply low land price to reduce construction cost and to invite investors. Second, the theme park has to have an attractive theme and new events for repeaters. Third, infra structures related to the theme parks are necessarily provided for high accessibility. Finally, more priority is placed on public relation for citizen and service education of the industry.

KEY WORDS : Theme Park, Attitude, International Tourist, Attractive Facilities, Market Survey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의 각국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관광 선진국들의 이러한 동향은 세계관광시장에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도시 또는 국가에서는 생존 차원에서의 전략을 창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력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1세기 국토비전인 제4차 국토계획(2000-2020)에서 국토를 문화 및 관광자원의 특색에 따라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특화주제를 부여하되 독특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중앙정부의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2000-2011)과 더불어 부산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동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주제공원의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부산을 대표할 만한 해양 주제공원의 설립 움직임과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측면, 그리고 사업의 직·간접적 영향 대상인 외래 관광객의 입장에서 각각의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운영 프로그램 상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ywhwang@bdi.re.kr, 051-640-2040

**종신희원, wiyhang@silla.ac.kr, 051-309-5049

1.2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으로 동원 된 설문조사는 외래 관광객의 이용성향과 새로운 주제공원에 대한 유형파악, 도입가능시설 등으로 구성하였고,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표본의 이용성향의 집단 간 차이점을 검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빈도분석을 통한 인구통계분석, 집단간의 차이 검증, 선호시설의 분류, 시장 세분화 등을 실시하였다.

Table 1 Survey research design

구분	외국인
표본 추출	• 부산국적별 관광객 비율을 적용하여 일본권, 중국권, 영어권으로 나누어 설문조사실시
조사 지역	• 부산시 전역 : 외국인 상가 및 호텔, 여행사
조사 일시	2001년 1월 8일 ~ 2001년 1월 11일 (4일간)
조사 방법	직접면접조사
조사 요원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생10명
조사 표본 수	300부(일본권215부, 중국권45부, 영어권 40부)

2. 주제공원의 개념과 내용

2.1 주제공원의 정의와 특징

주제공원(Theme Park)은 원래 테마성이 있는 쇼와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행하는 유원지(Amusement Park)에서 유래하였다. 일본 통산성은 주제공원을 “유희시설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의 테마로 전체환경을 만들고 쇼와 이벤트로 공간전체를 연출한 레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이외 선행 연구²⁾에서 나타난 개념정의를 토대로 볼 때 주제 공원은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일상을 탈피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소재란 주제를 표현하는 재료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주제공원에서 주제를 표현하는 소재로는 건축물, 직원들의 유니폼, 유희시설(Attraction), 이벤트, 식음료, 기념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검토 할 때 주제공원은 기존의 공원들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산업의 성격을 지닌다.³⁾

둘째, 대기업 편중이 심한 과점 산업이다.⁴⁾

세째, 미국의존도가 높은 오락산업이다.⁵⁾

네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다양화·대형화·첨단화되고 있다.⁶⁾⁷⁾⁸⁾

다섯째, 인적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형 산업의 특성을 보인다.

여섯째, 가족 중심의 체재형으로 전환되고 있다.⁹⁾

2.2 주제공원의 분류

주제공원을 어떤 특정의 주제에 따라서 전체를 구성한 레저랜드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주제공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주제에 따라서 시설을 구성한 개념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즉 주제공원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개념의 분석과 구축, 분류 등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공원은 공원의 공간성, 주제의 유사성, 전개되는 수법과 형태로 분류된다.

또한 주제는 주제공원의 생명과 같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제공원에서 주제가 다양한 소재의 이용을 통해 고객의 향수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주제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들의 재 방문을 이끌어내어 주제공원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3. 외래관광객 성향 분석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부산의 국적별 방문 관광객 비율(2000년 기준)을 토대로 설문 부수를 할당하였다. 일본 46%(215장), 중국 10%(45장), 영어 설문 9%(40장)로 표본조사 크기를 설정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2 Allocated number of the sample

구분	방문객수(명)	비율(%)	설문 부수(장)
일본권	593,007	46	215
중국권	125,436	10	45
영어권	112,005	9	40

부산의 외래관광객 시장의 목표시장이 되는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국적별로 일본, 중국, 미국 순이고, 국적별 외래관광객을 일본권, 중국권, 영어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중국권은 대만, 홍콩 등을 포함시켰고, 영어권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을 포함시켰다.

Table 3 Nationality analysis of the sample

문화권	빈도 (명)	비율 (%)	국적별	빈도 (명)	비율 (%)
일본권	197	68.6	일본	197	68.6
			중국	39	13.6
중국권	41	14.3	대만	2	0.7
			미국	21	7.3
영어권	39	13.6	캐나다	12	4.2
			영국	3	1.0
기타	10	3.5	호주	3	1.0
			기타	10	3.5
합계	*287	100.0	합계	287	100.0

주 : 조사표본수 : 300, 유효표본수 : 287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83명(28.9%), 전문직 45명(15.7%), 학생 28명 (9.8%), 판매서비스직 20명(7%) 순이었다.

Table 4 Occupational analysis of the sample

직업별	빈도 (명)	비율 (%)	직업별	빈도 (명)	비율(%)
회사원	83	28.9	제조업	16	5.6
전문직	45	15.7	주부	8	2.8
학생	28	9.8	자영업	7	2.4
판매/ 서비스 업	20	7.0	기타	3	1.0
교육직	27	9.4	무응답	50	17.4

주 : 조사표본수 : 300, 유효표본수 : 287

3.2 부산 방문 횟수 유형

일본권, 중국권, 영어권, 기타 문화권으로 구분해 부산을 방문한 횟수를 조사했을 때 일본권이 비교적 5회 이상이 36%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부산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권은 1회가 56%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부산 방문을 평균 1회 또는 2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권 또한 1회가 44%로, 부산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본권 외래관광객이 다른 국가보다 부산을 많이 방문할 뿐 아니라, 자주 방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역사를 주제로 한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 190명(65%)이었고,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은 94명(33%)이었다.

Table 5 Visitation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theme park

방문유무	응답자수(비율)
있다	190명(66%)
없다	94명 (33%)

방문했던 응답자 385명 중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경주 양동마을, 한국민속촌 순서인데, 경주 양동마을에 대한 방문객이 높은 이유는 경주 양동마을을 경주 전체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롯데월드 민속관과 안동하회마을에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3.3 장점과 단점

역사를 주제로 한 시설을 방문했던 방문객 중 좋았던 점은 전통문화 체험(45.9%), 색다른 경험(22.7%), 먹거리, 공연 등이 재미있었음(14.9%), 교육적 효과(9.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민속촌이나 역사를 소재로 한 시설이 교육적 효과보다는 전통문화 체험과 색다른 경험을 더욱 인상깊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역사를 주제로 한 시설을 방문했던 방문객 중 부정적이었던 점은 안내 및 해설 시설 부족(25%), 단순한 시설 배치(21%), 체험 프로그램 미비(19%)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민속촌이나 역사를 소재로 한 시설의 해설과 안내 시스템이 외국인 방문객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시설 배치에 식상해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부산의 주제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3.4 선호시설

요인분석 결과 외래관광객은 전체적으로 부산의 향후 주제 공원에 대해 역사적인 주제 하에 식음시설 및 부산 시대별 민속촌과 같은 한국 고유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관광객은 부산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일본권은 일본역사관, 중국역사관, 부산시대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중국권은 중국역사관, 부산시대촌, 식음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영어권에는 세계 미항 미니어쳐, 라이드 시설, 공연이벤트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3.5 분석종합

Table 6 Comprehensive market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tourists

구분	내용
국내외 역사를 주제로 한 시설의 이용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자 65%중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한국민속촌, 경주 양동마을, 롯데월드 민속관 순. 좋았던 점은 전통문화체험, 색다른 경험, 교육적 효과, 먹거리 공연의 재미순 좋지 않았던 점은 안내 및 해설시설의 부족, 단순한 시설배치, 체험 프로그램 미비 순
부산주제공원의 유형설정 및 방문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와 문화 중심의 공간과 재미와 교육을 겸비한 학습 체험 공간을 합친 공간이 가장 바람직하고, 방문의사가 높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대체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대답이 높았지만, 중국권의 외래관광객은 방문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음. 반면 영어권 외래관광객은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선호시설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역사촌, 식음시설, 부산시대촌, 해양민속촌, 공연이벤트 순 일본권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설에 지대한 관심 영어권은 체험적이고 활동적인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

4. 결 론

유원지(amusement park)의 부분적인 시설로서 출발한 주제공원은 이제 관광목적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각 지역마다 주제공원의 설립을 통한 관광객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제공원이 설립 후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거품경제시기에 새로운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많은 주제공원이 관광객 감소 등의 이유로 해서 폐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관광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시정방향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관광자원 외에는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어, 관광로서의 매력성 저하와 재방문율의 감소 등으로 향후 부산시는 관광의 불모지로 전락할 우려마저도 있다.

따라서 부산이 지니는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발·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타 지역의 주제공원보다도 특성화됨과 동시에 성공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의 값싼 대규모 토지의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환경적으로 훼손이 최소화되면서도 대규모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기초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요금체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 바가지 요금과 같은 문제 발생의 여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 관광객의 경우 방문 의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하면 동양적인 것에서 보다 한국적이고 부산의 해양성을 살린 독특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서양인들을 위한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교육적 기능이 동적인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시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타 관광시설 특히 해양관광자원과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입체적인 관광루트의 개설 및 시티투어의 활성화를 마련한다.

- 주1. 野村淳 · 河村誠治(國際東아시아 研究센터), 北部九州에 있어서 주제공원의 현황과 경제적 과급효과, p.89,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해협권연구, 창간호, 2001
- 주2. Milman, A., The Role of Theme Parks As a Leisure Activity for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Tourism Research, Winter 1991
Lyon,R .K., Overview of Types of Leisure Facilities, Theme Park & Attractions Conference, IAAPA, 1993
Mervyn Jones, T.S., Theme Parks in Japan·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John Wiley & Sons:Univ. of Surrey , UK 등 다수의 연구를 참조함.
- 주3. 중앙개발(주), 테마파크 · 레저랜드의 과제와 미래, 디밸로퍼, No. 8 1992, p.39
- 주4. IAAPA, 1995 Amusement Industry Abstract, Amusement Business, February 1995
- 주5. 엄서호, 테마파크의 월별 입장객수 추이분석과 마케팅 축면의 시사점, 디밸로퍼, 통권 17호, 1991, pp.24-27
- 주6. 손대현 외 1명, 리조트의 철학, 백산출판사, 1997, pp.21-25
- 주7. Foster, S., Making Sense of New Technology, Theme Park & Attraction Conference, IAAPA, pp.1-11
- 주8. Williams, P. & Hobson, J.S.P., Virtual Reality and Tourism: Fact or Fantasy?, Tourism Management, June, 1991, pp.132-140
- 주9. Goddard, G., Creating the Theme Park of 21st Century from Concept to Realization, Landmark Group, 1994, pp. 54-79
- [11] Williams, P. & Hobson, J.S.P(1991), *Virtual Reality and Tourism: Fact or Fantasy?*, Tourism Management, June, 1991, 132~140

참 고 문 헌

- [1] 양위주 장희정(1998), 『관광학』, 형설:서울, 51~66
- [2] 엄서호(1991), 테마파크의 월별 입장객수 추이분석과 마케팅 축면의 시사점, 『디밸로퍼』, 통권 17호, 24~27
- [3] 중앙개발(주)(1992), 테마파크 · 레저랜드의 과제와 미래, 『디밸로퍼』, No. 8, 39
- [4] 野村淳 · 河村誠治(國際東아시아 研究센터)(2001), 北部九州에 있어서 주제공원의 현황과 경제적 과급효과, 『한일 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해협권연구』, 창간호, 189
- [5] Foster, S(1995), *Making Sense of New Technology*, Theme Park & Attraction Conference, IAAPA, pp.1~11
- [6] Goddard, G., *Creating the Theme Park of 21st Century from Concept to Realization*, Landmark Group, 1994, pp. 54~79
- [7] Jones, Mervyn T.S.(1994), *Theme Parks in Japan-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John Wiley & Sons: Univ. of Surrey (UK), 111~126
- [8] IAAPA(1995), *1995 Amusement Industry Abstract*, Amusement Business,
- [9] Lyon, R. K.(1993), *Overview of Types of Leisure Facilities*, Theme Park & Attractions Conference, IAAPA, pp.56~67
- [10] Milman, A.(1991), *The Role of Theme Parks As a Leisure Activity for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1~16